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5.19(금) ~ 2023.05.25(목)

제공일시 2023 06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5.19(금) ~ 2023.05.25(목)

제공일시 2023 06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SBTN, 자연을 위한 최초의 과학기반 목표 발표

- SBTN(과학기반 목표 네트워크)은 기업의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돕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음
- SBTN은 생물다양성 버전의 SBTi에 해당되는데, 탄소 감축에 이어 최근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도 계속 생겨나고 있음
- SBTN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기후 목표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는데, 담수 및 토지를 포함해 담수 수질 및 수량, 육상 생태계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유함
- 이번 목표에는 네슬레, 테스코, H&M, 홀심, LVMH 등 17개 기업이 초기그룹으로 참여하며, 2024년 초에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 함

(ESGToday, 2023.05.24) Mark Segal 기자

2. "비행기 말고 기차 타세요" 프랑스, 단거리 비행 금지...항공 탄소배출 감축

- 프랑스에서 단거리 이동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됨
- 프랑스 국내선 중 운영이 금지된 노선은 '파리-오를리', '파리-보르도', '낭트-리옹' 노선이며, 환승 항공편은 예외임
-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2019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설하고 150명의 시민이 참여한 프랑스 기후시민회의(Citizens' on Climate)이 제안한 것으로, 당초 4시간 미만의 기차 이동거리에 존재하는 비행기 편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음
- 당시 항공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절충안으로 2시간 30분이 됐으며, 항공업계는 '2시간 30분' 절충안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비즈니스, 2023.06.24) 권광원 기자

3. 157개 다국적 대기업, 산업 탄소배출량 60% 차지

- 세계은행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57개 다국적 대기업의 직접 활동과 공급망이 전세계 산업부문 배출량의 최대 60%를 차지했음
- 이들 대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비중은 10%이지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배출량이 산업부문의 절반 비중을 차지함 탄소배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157개 대기업 가운데, 생산-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선언한 곳은 많지 않았음
-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한 곳은 157개 대기업 가운데 25%에 불과했으며, 장기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음
- 보고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 배분 전략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다국적 대기업은 기후변화 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뉴스트리, 2023.05.25) 이준성 기자

1. '한국형 탄소중립' 청사진...수소·SMR 등 '100대 기술' 선정

-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음
- 2030년 전후로 상용화할 미래 탄소중립 대표 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대량 탄소배출형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기존 기술은 저탄소로 군살을 빼는 전략 로드맵이 제시됐음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태양광 분야의 초고효율 태양전지 등 3개 기술 △풍력 분야의 초대형 풍력터빈 등 초대형화·해상풍력 5개 기술 △수소 분야의 수전해 기술, 해외수소 저장·운송 등 수소 공급 전주기 관련 10개 기술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의 수소 전소 가스터빈 등 분산·유연 발전원 관련 5개 기술 등이 망라됐음
- 정부는 석유화학 전주기(연료 대체, 원료대체, 자원순환, 신공정)에 걸쳐 친환경 공정혁신 기술을 2030년 전후로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철강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2018년 기준 1억120만t)해 2030년 전후로 생산공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탄소 무배출형 혁신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잡았음

(문화일보, 2023.05.19) 노성열 기자

2.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수출 기업 범정부 지원"

- 정부가 공급망 내 협력 기업의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움직임에 대응,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 정부는 24일 오후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의 ESG 관련 최대 현안인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음
- 정부는 업종별 컨설팅을 통한 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과 인력·자금 여건 개선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함
- 또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기준을 제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를 마련해 발표했다

(뉴스1, 2023.05.24) 오종택 기자

3.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23개 기업 참여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날 협약식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3조9000억원가량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연간 약 373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3.05.23) 정정욱 기자

1. 미국 공화당 ESG반대에 보험사 기후동맹 탈퇴 행렬 가속

- 보험사들이 미국 공화당들이 “NZIA(넷제로보험동맹)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력 비난하자, NZIA의 의장인 악사(AXA)를 포함해서 독일 알리안츠, 프랑스 재보험사 SCOR이 동맹을 탈퇴했음
- 이에 따라 2021년 출범한 유엔 주도의 NZIA 회원기업 8곳의 창립멤버 중 5곳을 포함해 최소 7개 기업이 탈퇴하게 됐음
- NZIA는 유엔기후특사인 마크 카니가 설립한 ‘글래스고넷제로 금융동맹’의 일부인데, 미 공화당은 이러한 금융사의 기후동맹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해왔음
- 이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잃는 것이 두려워 “기후여정은 계속하지만 동맹은 탈퇴한다”고 입장이며, 아직 23개 회원국이 남아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임 이미 스위스리, 뮌헨리, 취리히 인슈어런스 등이 동맹을 탈퇴했음

(Reuters, 2023.05.25)
Tommy Wilkes Alexander Hübner, Tom Sims 기자

2. 사우디 그린 수소 메가프로젝트 네움, 61억달러 녹색대출 확보

- 그린수소 메가 프로젝트 합작회사인 네움 그린수소(NGHC)는 84억달러의 투자가치에 달하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위한 재무조달 마감을 발표했다
- 23개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61억달러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녹색대출 프레임워크에 따라 시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중 하나임
- 2020년 출범한 NGHC는 재생에너지기업 ACWA파워와 산업용 가스생산업체 에어프로덕츠, 사우디아라비아 개발프로젝트 네움(NEOM)의 합작기업으로 세계 최대 녹색수소공장 건설을 목표로 함
- 2026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최대 4GW 규모의 풍력, 태양광을 포함 하루에 600톤의 무탄소 수소를 생산할 예정임
- 자금조달 외에도 NGHC는 67억달러의 에어프로덕츠와의 EPC 계약체결, 시설에서 생산되는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에어프로덕츠와의 독점적인 30년 계약도 발표했다

(ESGToday, 2023.05.22) Mark Segal 기자

3. 스탠다드차타드, 생물다양성 첫 수장 임명

- 스탠다드차타드는 올리버 위더스(Oliver Withers)를 첫 번째 생물다양성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생물다양성 고려사항을 회사의 비즈니스 및 의사결정에 더욱 통합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다
- 위더스는 크레딧스위스의 생물다양성 글로벌 책임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4개 사업부와 글로벌사업에서 생물다양성 고려사항 통합, 세계 최초의 야생동물보호채권 및 자연스왑을 위한 국가부채 등의 업무를 담당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생물다양성, 특히 블루이코노미에 대해 4대 글로벌 우선분야(기후적응 금융, 혼합 금융, 탄소수익화, 생물다양성)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ESGToday, 2023.05.23) Mark Segal 기자

1. 카카오, RE100 가입...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 카카오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 가입했다고 밝혔음 [\(한겨레, 2023.05.24\) 정인선 기자](#)
- 이번 RE100 가입을 기점으로 카카오는 신규 데이터센터(IDC)와 사옥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전력 사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60%·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
- 더불어, 재생에너지 자문위원단을 구축해 RE100 추진과 함께 탄소 감축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갈 예정임
- 카카오는 2022년 4월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Active Green initiative'를 발표하여, 2040년 탄소중립을 공표한 바 있음

2. HD현대-포스코-해운4사, 바다 위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 HD현대가 국내 대표 철강 및 해운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글로벌 해상 공급망 연결에 나섰다 [\(뉴데일리경제, 2023.05.24\) 김보배 기자](#)
- HD현대는 24일 포스코, 에이치라인해운·대한해운·팬오션·플라리스쉬핑 등 해운 4사와 '조선·철강·해운 3자 간 탄소중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HD현대는 오션와이즈를 화주인 포스코의 선단 관리 시스템(PosSIM)에 탑재하고, 해운 4사는 오션와이즈가 적용된 선박들의 운항 효율과 연료 소모량, 탄소 배출량 등 실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할 예정임
- HD현대는 이번 실선 검증을 통해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운 4사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 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3. 현대건설, 홀심과 저탄소 건설자재 기술협력...ESG경영 강화

-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Holcim)과 저탄소 건설자재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에 나섰다 [\(직설, 2023.05.25\) 권성권 기자](#)
-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한 소성점토 활용 저탄소 신재료 개발 ▲해양 환경 대응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저탄소 건설자재의 적용 확대에 힘쓸 예정임
- 현대건설과 탄소중립 건설자재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홀심은 스위스와 프랑스에 기반을 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의 건설자재 전문기업으로 6개 연구센터와 1500여개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5.19(금) ~ 2023.05.25(목)

제공일시 2023 06 0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 전방위 청정에너지 투자...저소득층 주택에 1조원, 수력 8000억원, 조력에도 투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투자가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임팩트온, 2023.05.19\) 홍명표 기자](#)

- 우선,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소득층 주택에 8억3000만 달러(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음. 이는 청정 에너지를 미국의 저소득층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조치로, 자금은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조달됨

- 주택도시개발부의 줄리아 고든(Julia Gordon) 주택 담당 차관은 "에너지 효율과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저소득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전통적으로 이런 커뮤니티는 청정에너지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음. 이 자금은 건물소유주들이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방풍 지붕과 같은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고든 차관은 덧붙였다

- 친환경 건물로의 리모델링과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이해관계가 다름에서 나타남. 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값비싼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줘봤자 이익은 해당 건물에 살고있는 거주자 혹은 세입자이기 때문임

- 특히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하다보니, 미 정부는 건물소유주에게도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위해 40억 달러(약 5조3298억원) 규모가 대출자금으로 할당돼있다고 말했음. 이뿐 아니라 올 여름 주택도시개발부는 4250만 달러(약 566억원)를 할당해, 공동 주택의 에너지와 물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할 계획임

-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는 재생 에너지원의 방대한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목표로 전국의 수력발전과 해양기술 강화를 목표로 6억 달러(약 8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및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법인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법안의 일환으로 진행됨

- 현재 미국 내 9만 개 댐 중 3% 미만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수력발전은 미국 내 전체 전력 공급의 6%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전체를 따져보면 32%를, 모든 유틸리티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에서 93%의 비중을 차지함

- 미 에너지부는 "노후한 수력 발전소에 발전 장비를 추가하면 미국 전력 시스템에 최대 12기가와트의 수력 발전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망 복원력, 댐 안전 및 환경영향과 관련된 자본 개선을 위해 수력 및 양수 저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또 미 에너지부는 현재 초당적 인프라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 수력 전기 인센티브 유지 및 향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교통부는 이 법이 국가 역사상 인프라 및 경제에 대한 최대 규모의 장기 연방 투자라고 말했다.

- 이에 더해 미 에너지부는 미국 최초로 조수와 에너지 연구, 개발, 시범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조력 발전 기술은 바다와 강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물에서 나오는 자연 에너지를 깨끗한 전기로 바꾸는 기술임.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필요한 총 전력 및 전기의 거의 60%를 바다와 강이 차지한다고 함
- 이번 투자는 4500만 달러(약 6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조력 발전을 장려하고, 이 분야의 공급망과 인력을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에너지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미 에너지부는 밝혔음
- 기금은 ▲해역에서 시험 조력발전, 현재 에너지 기술 시연장의 개발을 위해 최대 3500만 달러(약 466억원)를 지원 ▲지역사회 주도의 조력발전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만 달러(약 133억원)를 제공한다